

질적연구방법론 교수학습법을 위한 제언

조 혜 정(충신대학교 아동학과)

우리는 21세기 포스트모던니즘 사회를 살고 있다. 이 사회의 특징은 '다수'라는 양을 강조하는 모던니즘의 경향을 벗어나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있다. 이전의 모던니즘 사회에서는 다수가 우세였고 이들의 의견이나 경향에 과묵히 수적으로 열세인 소수는 언제나 숨을 죽이거나 경시되어져 왔다. 따라서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다수로부터 자료를 얻고 이를 분석하고 일반화된 규칙을 추출하는 양적연구만이 최고로 간주되었다. 아울러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주관적 가치관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적 자질로서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던니즘의 시대를 뛰어넘는 탈모던니즘 즉 포스트모던니즘 시대는 이제 당당하게 다양한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성을 갖고 의견을 표출하는 데 어색하지 않다. 이러한 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생활과학 분야에도 신선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즉, 양적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속에 담아내지 못했던 소수의 다양성과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는 질적연구가 그것이다. 이 시대에 발을 딛고 있는 연구자라면 한번쯤 호기심어린 눈으로 질적연구방법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성은 교수의 '질적연구방법론: 교수학습법을 위한 제언'의 논고는 매우 시기적절한 주제이며 생활과학 연구자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부러움이 된다. 이 논고에서 밝혔듯이 익숙하지 않은 질적연구방법이기에 생활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갖는 오해가 있다. 낯설은 질적연구방법의 어려움과 설사 연구했다라도 게재될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 '연구 대상자'에서 '고마운 연구 참여자'로서 인식 전환,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의지를 위한 동기부여 등 그것이다. 그러나 어찌보면 이는 연구자의 오해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고 때문에 질적연구방법을 시작하기 어렵게 하는 속사정인 듯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 교수님이 제안이 타당해 보인다. 즉, 성급한 방법론적인 접근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기초 작업이자 질적연구방법의 근거가 되는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주제나 연구대상에 따라서 어떠한 구체적인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선별할 수 있는 안목도 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지식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경험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본 논고에서는 제시되어있지 않으나, 이 분야에 문외한 토론자가 볼 때 꼭 다루어져야할 논의점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이다. 질적방법론이 단순한 방법론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자는 철저하게 훈련되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인이어야 할 것이다. 질적방법론의 관심과 필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반하여 숙련된 전공자가 매우 드물어 이 방법론의 저변 확대를 저해되고 있다. 예컨대 한 연구자가 어렵사리 질적방법론을 실제 적용했다 하더라도 슈퍼비전을 받을 통로가 극히 드물다. 또한 창의적이며 최근 개발되고 있는 질적연구분야에 대한 업데이트를 과감하게 누가 할 수 있을 지도 다소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질적연구방법의 교수자로서 자질과 연구능력 향상에 대한 문제가 그리 단순한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